



조간 제7962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음력 9월 23일)

광주 ‘민생·성장·기후’...전남 ‘AI·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7조6823억원〉

시·도, 내년 본예산 편성...의회 제출
광주, 서민경제 안정·미래산업 선도
전남, 저출산 극복·에너지 수도 육성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7조6823억원, 12조7023억원을 각각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미래 전략산업 투자 등에 예산을 집중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도 본예산안을 7조6823억원 규모로 편성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7조6043억원)보다 780억원(1.0%)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3.9% 감소했지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7.4% 증가했다.

내년도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0.2% 증가한 6조2725억원으로, 특별회계는 5.0% 늘어난 1조4098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성장·돌봄·기후’ 등 4대 전략, 함께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과 골목상권 제도적 지원 등 민생활력 분야에 1768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제도적 지원을 하고 활력 있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별보증자금(75억5000만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10억원),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2억5000만원),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비율(1억5000만원) 및 미소금융 이자 지원(2억5000만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지원사업으로는 청년월세와 구

직활동 수당, 일경험 드림사업 등 200억원 규모가 반영됐다. 또 미래산업 선도과 글로벌 혁신도시 도약 등 혁신성장 분야에 3068억원 편성됐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AI 2단계 AX실증밸리 조성(73억원), 미래차 고효율 전장핵심부품 개발지원플랫폼(6억원)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예산도 편성했다.

창업생태계 확충을 위한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103억원) 운영과 스타트업 펀드 조성도 병행한다.

여기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879억4000만원)과 글로벌 대학 육성(338억원)을 추진하고, 비엔날레(54억원)와 국제문화창의산업전 등을 통해 문화산업 기반도 넓힌다.

인구위기 대응과 전 생애주기 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돌봄 분야에 2조2690억원을 책정했다.

전남도도 이날 2026년도 예산안 12조7023억원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1587억원(1.3%) 증가한 규모로, 도는 AI·에너지·첨단산업 육성, 민생 회복,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행정공동체 강화 등 4대 전략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 일반회계는 10조4587억원으로 5.0%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2355억원으로 8.5% 증가했다. 반면 기금은 1조81억원으로 4347억원(30.1%) 줄

었다.

전남도는 ‘AI·에너지 첨단산업 수도’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대폭 늘렸다. AI 기반 인력양성과 스타트업 성장지원(10억원), 첨단로봇 AI 제조혁신(8억원), 대불·여수 국가산단 AX 실증 인프라 구축(7억원) 등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인프라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총합해 배분됐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55억원,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2억원 등 금융지원 예산이 확대됐고, 전통시장 현대화(5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50억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뒷받침된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416억원)을 비롯해 청년 공공임대주택(160억원), 전남형 만원주택(100억원), 청년월세 특별지원(44억원) 등이 반영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 유입을 동시에 노린다. 출생기 분수당(142억원), 난임·출산 시술비(21억원), 등 출산·양육 지원책도 확대됐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94억원), 경로당 운영비 확대(32억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20억원) 등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영과 지방재정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과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미래 전략사업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추곡수매 ‘분주’ 11일 오전 광주 북구 건국동 북광주농협 우치동지점에서 열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이 올해 수확한 벼의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골목상권에 ‘훈풍’

북구 6일만에 100억 완판
동구 50억 발행 종료 임박
남·광산구 가맹점 수 확대
생활경제 ‘선순환’ 이끌어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발행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소비 순환’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9월22일부터 발행 중인 지역화폐 ‘동구랑페이’가 지난 10일 기준 판매액이 47억8600만원을 기록하며 발행 규모 50억원 완판을 앞두고 있다.

‘동구랑페이’는 발행 한 달만인 지난달 23일 기준 28억원 이상이 판매되면서

56%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참여 확대, 가맹점 확충, 안정적인 행정 운영 등이 결합되면서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행사에서 참여 가맹점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또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동구랑페이의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남구 ‘동행카드’도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발행을 시작한 동행카드는 봉선시장, 무등시장 등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가맹점 모집에 착수했다.

이후 민원과 수요를 반영해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현재 905개 가맹점이 등록됐고, 이날 기준 150여개가 심사 중에 있어 조만간 1000여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준 남구 동행카드는 발행규모 30억원 중 15억원(50%)이 판매됐다.

타 자치구보다 뒤늦게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 북구는 발행 6일 만에 예산 100억원이 조기 소진되는 성과를 냈다.

올해 지역화폐를 발행한 북·동·남·광산구 4곳 중 예산이 완전히 소진된 곳은 북구가 유일하다.

특히 ‘부끄머니’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만9600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18%의 파격 할인율을 적용해 출시 직후부터 주민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3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한 권종과 1인당 최대 50만원의 구매 한도를 설정하고, 북구 소재 광주은행 전 영업점 판매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산구의 ‘광산사랑상품권’도 생활경제를 지원하는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광산사랑상품권’은 이날 기준 11억원(11%)이 소진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NDC 2035년까지 53~61% 최종 확정

내년 ‘K-녹색전환’ 마련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

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도 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t이 된다.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

~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 등이다. 남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18.6% 증가할 것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olee235@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40-8374 / 010-4572-7164